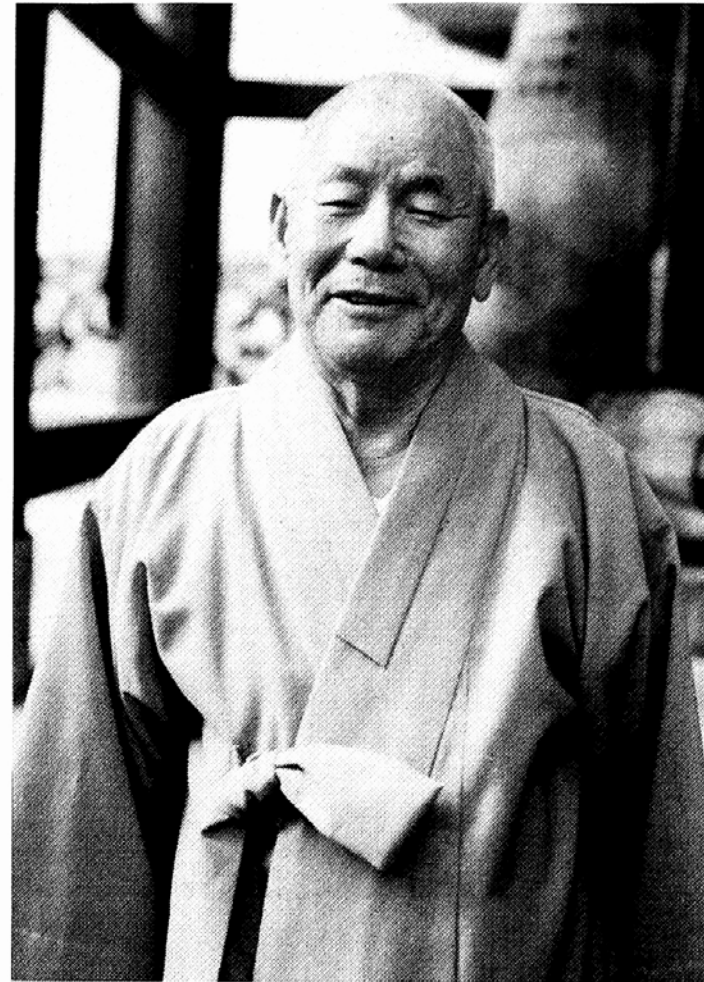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매사 참고 견디면

수도스님 (부산 용주사 조실)



- 1925년 양산 생
38년 통도사 입산
47년 해인사 법보학원 입학
49년 통도사 강원 입학
54년 부산 원각사 창건
62년 부산 용주사 창건
78년 대한법회총 부산총무원장
역임·부산새들원 불우이동
5년간 양육
저서 <반아심경 강술> <천수경 강술> <업경대> 등

“한 순간을 참지 못해
시비도 싸움도 생기는 것
항상 자기를 살피세요”

는 사람들이 수습했습니다. 이들을 제도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 스님네가 같길고 그것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이들이 직책에 연연하고 물질에 연연하며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세간 살림살이가 분쟁 시비로 얼룩진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상대를 탓하고 남을 비방하면 언제든지 시비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

나기 마련입니다. 서로 서로 “나의 잘못은 없는지” 반성해 본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더욱욱 지혜로운 해결이 나올 뿐이지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초등학생 정도나 됐을 아이 둘이 삼은 옥수수 하나씩을 들고 타더군요. 둘이서 옥수수 껍데기를 벗겨서 맛있게 먹었는데, 다 먹은 후에 살펴보면 한 아이는 옥수수를 얹혀서 먹어 입가에 묻지 않고 깨끗했습

니다. 그에 비해 다른 한 아이는 함부로 먹어 입가에 옥수수 조각들이 온통 묻어 지저분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입가가 깨끗한 아이가 자기 친구 입가에 옥수수가 묻어 지저분하니까 자기 자신의 입가를 손으로 닦아 내더군요. 친구 입가에 묻어 있으니 자신의 입가도 그렇지 않나 걱정스러웠던 게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입가에 먹지 먹지 옥수수를 묻힌 아이는 앞에 있는 친구가 깨끗하니까 안심한 듯이 닦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티가 없고 깨끗한 이들이 상대 얼굴의 티를 보고 오히려 자기의 얼굴을 씻고 또 씻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을 비방하길 좋아하고 시비를 가리길 좋아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참회하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경도 전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행실 하나라도 나 먼저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①

願諸修道之人 研味此語 更莫狐疑
원제수도자인 연미차오 경막호의
自生退屈 若求丈夫之志
자생퇴굴 약구장부지지
求無上菩提者 捨此奚以哉 切莫執文
구무상보리자 사차해이재 절막집문
直須了義 一解就自己 契合本宗
직수요의 일일기휘자기 계합본종
則無師之智 自然現前 天真之理
즉무사지 지자연현전 천진지리
了然不昧 成就慧身 不由他悟
요연불매 성취혜신 불유타오

다. 한갓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허다히 많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 귀를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은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결>에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부처가 될 인연을 맺고, 배우고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간과 천상의 복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렇게만 해도 성불할 바른 인연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를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의 그 공덕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追念過去輪迴之業 不知其幾千劫
追念過去輪迴之業 不知其幾千劫
受種種苦 受種種苦
不知其幾何 而欲求佛道 不逢善友
不知其幾何 而欲求佛道 不逢善友
又不知其幾何 而欲求佛道 不逢善友
又不知其幾何 而欲求佛道 不逢善友
又不知其幾何 而欲求佛道 不逢善友
又不知其幾何 而欲求佛道 不逢善友

바라건대, 모든 도 닦는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음미해서 다시는 의심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약 장부의 뜻을 가지고 최상의 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코 글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참 뜻을 깨달아서 일일이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에 계합한다면 스승없는 지혜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고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타인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리라.

글에 집착 말고 참 뜻을 바로 깨닫고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에 계합해야

而此妙旨 雖是諸人分上
이치묘지 수시제인분상
若非夙植般若種子 大承根器者
若非夙植般若種子 大承根器者
豈能一念而正信 豈徒不信
豈能一念而正信 豈徒不信
亦乃誘誘 返招無聞者
亦乃誘誘 返招無聞者
역내방독 반초무간자
比比有之 雖不信受 一經於耳
比比有之 雖不信受 一經於耳
비비유지 수불신수 일경어이
暫時緣緣 其功功德 不可稱量
暫時緣緣 其功功德 不可稱量
잡시결緣 기공결덕 불가칭량
如離心訣云 聞而不信
如離心訣云 聞而不信
여유결緣 문이불신
尙結佛種之因 學而不成
尙結佛種之因 學而不成
상결불종지인 학이불성
猶蓋人天之福 不失成佛之正因
猶蓋人天之福 不失成佛之正因
유개인천지복 불실성불지정인
況聞而信 學而或 守護不忘者
況聞而信 學而或 守護不忘者
황문이신 학이성 수호불망자
其功德 豈能度量
其功德 豈能度量
기공덕 기능탁량

再受前殃 又不知誰復使我 今值人生
再受前殃 又不知誰復使我 今值人生
재수전양 우부지수부사야 금치인생
爲萬物之靈 不昧修真之路
爲萬物之靈 不昧修真之路
위만물지령 불매수진지로
實謂盲龜遇木 纖芥投鍼
實謂盲龜遇木 纖芥投鍼
실위맹구우목 섬개투침
其爲慶幸 曷勝道哉
其爲慶幸 曷勝道哉
기위경행 갈승도재
과거에 은회하던 업을 돌이켜 보면 갓 천 겁을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또 불도를 구하고자 해도 착한 벗을 만나지 못하여 그 얼마나 오랜 겁을 나고 죽는 바다에 빠져든 채 깨닫지 못하여 많은 악업을 지었던가.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하면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나오는데, 어찌 또 게으름을 피워 지난 날의 재앙을 다시 받게끔. 그리고 누가 나로 하여금 지금 인생으로 태어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진리의 길을 닦도록 하였는가. 실로 눈먼 거북이 나무를 만나고, 작은 겨자씨가 바늘에 콧밥과 같으니 그 다행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김원각(시인·역경위원)

이러한 묘한 뜻은 비록 모든 사람에 해당되긴 하나 일찍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

완전 초보에서 60일내 영어회화가 슈창해진다??

AMT AUTO MEMORY TAPE
방법만 달리하면
최단 시간내 가능!!
국내 최초로 개발된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A.M.T”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M.T. PROGRAM은 한국어 구조에 익숙한 우리의 중추대뇌신경을 영어 말성구조로 변환시켜 줍니다. 영어식의 생각의 틀 형성 및 말성구조가 영어식으로 바뀌게 하는 PROGRAM입니다.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정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상품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x14x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11월 한달 세일~!! 50대 한정...
가격
삼백만원
봉송왕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한마음의 보연 캐나다 산삼
산삼은 지구 북위 50도 선상에 의식과 물질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밤하늘 은하수가 선명히 보이는 곳에서 그곳의 정기를 받아 자생하므로 우주 만물의 근본인 청정한 한마음의 상징이다.
산삼이란 말 그대로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한 삼을 산삼이라고 한다. 산삼씨앗을 동물이 섭취하여 배설로 인하여 자란 산삼을 천중이라 하며 산삼 씨앗이 자연 상태로 떨어져 자란 산삼을 지중이라 한다.
이외에 사람이 관리, 재배한 삼은 인중, 장재, 장녀산삼이라고 하는데 이는 산삼이라 할수 없다. (또한 관리 재배된 삼은 절대 30년이상 자라는 삼은 없다)
산삼은 약도 약초도 아니며 산삼의 정확한 이해로 산삼을 캐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 구입하는 사람, 먹는 사람 모두가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생명이 될 때 모두가 모든 병고의 역경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산삼과 인연을 맺게 되는 분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자신의 근본 자리에서 맺어주는 인연이므로 본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산삼을 구경하시고 마음에 닿은 산삼을 선정하여 연락주시면 상호 산삼대금을 약정하고 운송료와 최초의 경비를 먼저 보내주시면 산삼을 보내드립니다. 산삼을 받으신 다음 약정한 산삼 대금은 자신의 근본과 틀이 아니신 가까운 곳 부처님전 불경함에 내는 사이없이 내가 함이 없이 내시면 됩니다. (절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켜보는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산삼과 인연을 맺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연락 주십시오. 상세한 것은 본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도록 하라. 자신의 마음이 나침반이다.
- 부처님 법어 중에서
홈페이지 주소 :
http://webhome.direct.com/~hayandol/sansam
e-mail : hayandol@direct.com
Fax : 001-1-416-224-0152
Tel : 001-1-416-224-2613
Address : 4710 Yonge St. Toronto, Ontario
Canada M2N 5M4
정호 함자